청빈한 삶과 생애

책·자연·사람을 사랑한 '맑은 스님'

해남 태생 전남대 재학중 출가
타종교와 갈등 벽 허물기 앞장
무소유 실천 혼탁한 세상 정화

외롭고 고단한 수행의 길을 치열하게 실천한 법정 스님이 우리곁을 떠났다. 한국 불교는 스님을 통해 대중화를 이룰 수 있었고, 불법을 모르는 일반대중들도 그를 통해 '무소유'라는 불교의 진리에 다가 설 수 았었다.

스님은 자신이 창건한 길상사의 회주를 한동안 맡았을 뿐, 그 흔한 사찰 주지 한 번 지내지 않았다.

1932년 10월8일 해남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법정 스님은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앞에서 고민한다.

스님과 함께 어린시절을 보낸 임준문(74·해남군 문내리)씨는 "법정스님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궁핍한 생활을 했지만, 작은아버지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면서 "초등학교 졸업후 목포에 있는 상고로 진학한 후 생활비를 타러 고향에 올 때면 늘 손에 책이 들려 있었다"고 고향선배인 큰 스님의 옛 시절을 회상했다.

스님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을 같이 다녔던 박광순(전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씨는 "법정은 학교때부터 뛰어난 글재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연과 같이 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전남대 상대 재학 중이던 1954년 마침내 입산 출가를 결심하고 싸락눈이 내리던 어느 날 집을 나선다. 서울의 안국동 선학원에서 당대의 선승 효봉스님(1888~1966년)을 만나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는다. 다음날 경남 통영 미래사로 내려가 부목(負木·땔감을 담당하는 나무꾼)부터 시작해 행자 생활을 했다. 당시 환속하기 전의 고은 시인, 박완일 법사(전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등이 함께 공부했다.

법정스님은 이듬해 사미계를 받은 후 지리산 쌍계사에서 정진했다. 28세 되던 1959년 3월 양산 통도사에서 자운 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고, 1959년 4월 해인사 전문강원에서 명봉스님을 강주로 대교과를 졸업했다.

1960년 봄부터 통도사에서 4·19와 5·16을 겪은 스님은 1960년대 말 서울 봉은사 다래헌에서 운허스님 등과 함께 동국역경원의 불교 경전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 이 시절 함석헌, 장준하 등과 함께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과 유신 철폐운동에 참여한 법정스님은 반체제운동의 의미와 출가수행자로서의 자세를 고민하다 다시 걸망을 짊어진다.

출가 본사 송광사로 내려온 법정스님은 1975년 10월부터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했다. 1976년 산문집 '무소유'를 낸 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불일암 생활 17년째 되던 1992년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일암을 떠나 강원도 화전민이 살던 산골 오두막에서 지금까지 혼자 지내왔다.

법정스님은 다른 종교와도 벽을 허물었던 것으로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법정스님은 길상사 마당의 관음보살상을 독실한 천주교신자 조각가인 최종태 전 서울대교수에게 맡겨 화제를 모았다. 또 1997년 12월 길상사 개원법회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방문했다. 법정스님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듬해 명동성당에서 특별 강론을 하기도 했다.

법정스님은 불교신문 편집국장, 송광사 수련원장, 보조사상연구원장 등을 지냈고 1994년부터는 환경보호와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시민운동단체인 '맑고 향기롭게'를 만들어 이끌어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법정 스님 발자취

▲1932년 10월 8일=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출생
▲1954년=통영 미래사에서 효봉 선사를 은사로 입산 출가
▲1959년=해인사 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이후 해인사, 송광사 등 선원에서 수선안거(修禪安居)
▲1975년=10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충격, 송광사 불일암으로 돌아감
▲1976년='무소유' 출간
▲1984~1987년=송광사 수련원 원장
▲1992년=강원도 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고 홀로 수행정진
▲2010년 3월 11일=입적

지난 1997년 12월 길상사 개원법회를 방문한 김수환 추기경과 인사를 나누는 법정스님. /연합뉴스

■ 송광사와의 인연

출가 본사…불일암 짓고 17년 수행

법정스님에게 순천 송광사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다.

법정스님은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후 반체제운동의 의미와 출가수행자로서의 자세를 고민하다 다시 걸망을 짊어지고 찾은 곳이 출가 본사 송광사였다. 스님은 1975년 10월부터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스님은 '선택한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라는 청빈의 도로써 무소유의 참된 가치를 실천해 간다. 스님의 베스트셀러 '무소유'도 여기서 쓰여졌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에도 스님은 이 곳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스님은 '한줌의 재' 란 글을 통해 항쟁이 끝난 뒤 하루하루 비참하게 견뎌야 했던 그해 여름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또 '무소유'에 감명받고 스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불일암 생활 17년째 되던 1992년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일암을 떠나 강원도 화전민이 살던 산골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왔다.

스님은 강원도에 머무르면서도 세 달에 한차례씩은 송광사에 내려와 불일암에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일암에는 법정 스님이 쓰던 수저 등 유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광사 진경 스님은 "불일암에 계실때 법정 스님께 질문을 했더니 질문속에 답이 다 들어 있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11일 법정 스님 입적으로 순천 송광사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한 스님이 법정 스님이 거쳐했던 불일암 앞을 무거운 걸음으로 지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소유' 읽고 감명 받은 女신도
1천억대 요정 대원각 시주 창건

법정 스님 마지막 시간 보낸 길상사

법정 스님이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 서울 길상사는 그가 쓴 산문집 '무소유'가 인연이 돼 창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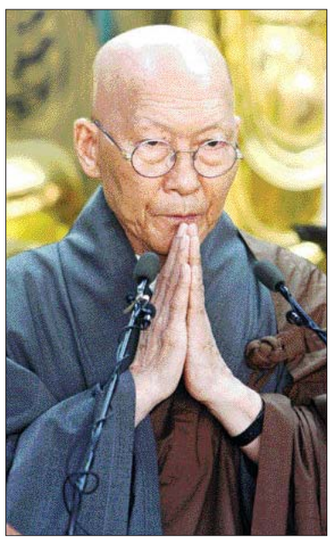
길상사는 원래 국내 대표 요정이었고, 16살 때 조선권번에서 궁중아악과 가무를 익힌 김영한(여·1916~1999년)씨의 소유였다.

김영한씨는 월북시인 백석(1912~1995년)과 사랑에 빠져 백석으로부터 '자야'(子夜)라는 아명으로 불린 것으로 더욱 유명하다.

그녀는 지난 1953년 중앙대 영문과를 졸업해 '백석, 내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 '내 사랑 백석' 등의 책을 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녀가 지금의 길상사 자리를 사들여 운영하던 청암장이라는 한식당은 제3공화국 시절에는 대형 요정 대원각으로 쓰였다.

이곳과 법정스님의 인연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소유'를 읽고, 큰 감명을 받은 그녀는 1987년 미국에 체류할 당시 설법 차 로스앤젤레스에 들른 법정스님을 만나 "대원각 7천여평(당시 시가 1천억원)을 시주하겠으니 절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09년 4월 19일 길상사 대중법회에서 합장하는 법정스님. /연합뉴스

하지만 법정스님은 줄곧 시주를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다가 지난 1995년 마침내 청을 받아들여 법정스님의 출가 본사인 송광사 말사로 조계종에 등록한다.

이후 1997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로 이름을 바꿔 12월14일 창건법회를 갖는다. 이날 김씨는 법정스님으로부터 염주 하나와 '길상화(吉祥華)'라는 법명을 받았다.

당시 그녀는 수천 대중 앞에서 "저기 보이는 저 팔각정은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이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저곳에서 맑고 장엄한 범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1999년 11월14일 세상을 떠났고, 유골은 49재 후 유언대로 길상헌 뒤쪽 언덕에 뿌려졌다.

길상사의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을 만들어 매년 고교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길상사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분원을 두고 있고, 헝가리 원광사, 인도 천축선원, 호주 정혜사를 자매도량으로 삼고 있다.

법정스님은 길상사 창건 후 회주(법회를 이끄는 어른스님)를 맡아 정기법회에서 법문을 들려줬으나, 2003년 12월 회주 자리도 내놓았다.

이후에도 법정스님은 길상사에서 열리는 대중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하는 등 인연을 이어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